

커피대신 잎차 마시니 대화 솔~솔, 업무 쑥~쑥

대중상담을 위해 은행에 들른 A씨. 은행 직원이 “차 한잔 하라”며 건네준 것은 티백 녹차가 담긴 종이컵. 뜨거운 종이컵을 손에 쥐었다 농기를 반박하다보니 어느새 상담이 끝나 버렸다. 아직 반도 채 마시지 못한 녹차. 남기자니 미안하고 다 마시자니 티백 녹차 특유의 떼떠름함이 입에 남아 멍뭍거리게 된다.

많은 사람들이 ‘번거롭다’ ‘어렵다’는 이유로 사무실에서 잎차 대신 티백 녹차나 커피믹스를 애용하고 있다. 그러나 시판되고 있는 티백 녹차는 중국산 찻잎을 이용한 경우가 대부분이라 맛이나 효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또 커피는 대화가 길어질 경우 한 잔 더 청해 마시기도 애매해 서둘러 자리를 정리하게 된다.

하지만 최근 녹차 열풍을 타고 사무실에서도 간단한 다구를 준비해 차를 우려마시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서울 빙이동에서 무역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김영현(37)씨는 식탁 전 3인용 다구 한 세트를 샀다. 직장상사 사무실에서 사람들을 많이 만나다보니 ‘차’를 애용하게 됐고, 그 중 몸에 좋은 녹차를 마셔보자는 마음을 먹었기 때문이다. 김씨는 서울 인사동의 한 전문점에서 다구와 차를 샀고, 간단한 사용법을 배웠다. 다구 사용법도 처음엔 복잡하게 느껴졌지만 몇 번 차를 우려다 보니 자신에게 맞는 간소한 다구를 체득할 수 있었다. 차 달는 통은 따로 준비하지 않고 차 봉지를 잘 밀봉해 두고, 다건(다기의 물기를 닦는 천) 대신 테이백 냅킨을, 찻숟가락 대신 티스푼을 사용하는 식이다. 김 대표는 “처음엔 서툴고 실수도 하지

만 그런 점이 오히려 대화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드는 경우도 있다”며 “업무뿐 아니라 차에 대한 이야기도 나누게 되고 몇 번씩 차를 우려마시다보면 자연히 대화 시간이 길어진다”고 말한다.

녹차 열풍에 ‘차’ 애용하는 사무실 늘어 상담 길어지고 친근함에 이미지 상승 공간 활용, 손님 방문 빈도 고려 구입해야

차인이 많기로 유명한 대구 지역에 기반을 두고 있는 대구은행은 회사 차원에서 차 마시는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다. 2003년 전국 300여 개 지점에 8인용 다구세트를 일괄 지급한 것이다. 고객에게 차를 직접 우려 직접함으로써 친근함과 편안함을 느끼게 해 은행의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해서다. 회사 연수기간에는 전문 강사를 초청해 차에 대한 강의를 열기도 했다. 대구은행 대천동지점 점 손계환 지점장은 이때의 인연으로 직접 녹차를 우려 손님들에게 건네고 있다. 손 지점장은 “차를 즐겨 마시고부터 줄음도 줄어 들고 몸도 한층 가벼워졌다”고 말한다. 차를 우리는 동안 자연스럽게 대화가 이뤄지고 세상은 이야기나 속 깊은 이야기로 오가게 돼 상담자들과의 관계가 더 가까워진 것도 사무실에서 차를 마신 후의 변화다.

그렇다면 사무실에 작은 다실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노후가 필요할까?



불교전문여행사 구광국 대표(오른쪽)가 사무실에서 차를 마시며 방문객과 상담하고 있다. 차는 처음 마시는 사람들과의 대화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한다.

진 찻물은 속수에 따라 찻잔에 나누면 된다. 다호(차를 담아두는 그릇)나 찻잔받침, 찻숟가락, 찻수기 등은 필요에 따라 구입한다. 이 밖에 찻상이나 다반이 있으면 다구를 보관하거나 옮기기에 편하다. 손님을 위한 차 테이블이 따로 있다면 다표를 깔아 찻잔을 내려놓을 때 소리가 나지 않도록 한다. 차를 처음 마시는 사람이라면 우선(꼭우) 전에 탄 찻잎으로 만든 차이나 세차 같은 비싼 차 보다는 중차 정도가 적합하다. 하동이나 보성 등 국내 농가에서 만든 중차는 보통 100g에 2~3만원선이다. 잎차를 구입하는 비용이 부담스럽거나 차 우려기가 번거롭다면 국산 찻잎으로 만든 티백 녹차를 사용한다. 티백 녹차를 속수나 다관에서 우려낸 후 티백을 빼내고 찻잔과 함께 내는 것도 한 방법이다.

여수령 기자 snoop@buddhapia.com



사무실에 다관과 속수, 찻잔만 갖추어도 훌륭한 찻자리가 만들어진다.

녹차를 마시기 위해 다구를 마련한 사람들 중에는 몇 번 사용하곤 ‘번거롭다’며 방치해두는 예가 많다. 사무실의 공간 활용이나 사용 빈도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다구를 구입하기 때문이다. 우선 자신의 사무실에 응접 테이블이 있는지, 하루에 손님이 몇 명이나 오는지를 따져본다. 손님이 많이 드나드는 곳이라면 5인용 다구를, 그렇지 않다면 3인용 다구나 찻잔이 있는 1인용 다구를 사용한다. 거머방이 있는 1인용 다구도 많이 사용하지만 여러 개를 둘 경우 자리가 많이 차지하고 설거지하기도 번거로운 단점이 있다. 다구를 둘 장소가 넓지 않으면 3인용 다구나 찻잔이 있는 1인용 다구에 찻잔 2~3개를 추가하는 것도 좋다.

차를 마시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준비물은 냉온 정수기(혹은 커피포트)와 다관, 속우, 찻잔이다. 속수에 뜨거운 물을 받아 식힌 후 찻잎이 든 다관에 따라 우려고, 우려

상방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지리적 표시로 구성된 상표는 해당 지역의 생산자 단체 등이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으로 출원하면 등록받을 수 있게 된다. 3월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보성녹차’나 ‘하동녹차’ 등 지역 특산품의 명칭이 단체표장으로 출원 시 등록이 가능해졌으며 지식재산권으로 적극적인 보호를 받게 됐다. 등록을 받으려는 생산자 단체 등은 상품의 품질과 명성, 대상지역 등을 기재한 정관과 지리적 표시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전주시 경기전에서 열린다. 한국차문화협회와 전주시, 전주전통문화증진추진단, 천년전주사랑모임이 공동 주관하는 이번 행사에서는 차문화 차예절 발표회와 제작시연은 범위군(范偉君) 중국도자공예 미술사가 맡는다. 참가비 무료. (02)762-5634

지리명 상표보호 받는다

‘보성녹차’ ‘하동녹차’ 등 지역특산품의 지리적 명칭도 상표법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게 된다. 특허청은 오는 7월 시행을 앞둔

중당(使俊業) 강소성 도자행업협회가 ‘의흥 자사공예의 현황’을, 서달명(徐達明) 강소성 공예미술협회가 ‘자사차호에 담긴 예술미’를 각각 발표할 예정이다. 자사차호 제작시연은 범위군(范偉君) 중국도자공예 미술사가 맡는다. 참가비 무료. (02)762-5634

차문화협, 들차 경연대회

우리 전통생활문화를 계승하기 위한 ‘들차회 경연대회’가 4월 17일 오전 11시 전북

자사차호 강연 및 시연회

도서출판 바나나와 지유명자는 4월 12일 오후 3시 서울 세종문화회관 컨벤션센터에서 ‘중국공예미술사조형 강연 및 시연회’를 개최한다. 자사차호(紫砂茶壺)에 대한 강연과 제작 시연회가 함께 열리는 이번 행사는 ‘제2회 중국도자예술타’의 본행사로 치러지는 것이다.

강연에서는 서한당(徐漢棠) 중국 공예미술대사가 ‘의흥 자사차호의 특수성’을, 사

고려시대 ㉔

유진경 교수의
연표로 보는
차 문화사 (24)

전대에 고양되어 꽃피었던 차문화는 왕조의 쇠락과 함께 퇴조하게 된다. 더구나 신권이 권력에 가까이하고 부처 불승(佛僧)에 대한 성도와 불교계의 부패상이 문제되어 억불조치가 취해지게 된다. 유학자들의 척멸 운동으로 부처자들의 사찰 출입이 금지되자 자연 사람의 재정과 다공도 위축된다. 이는 나아가 청자다기의 쇠퇴와 함께 새로운 기법의 다기 생산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었다.

중국은 명의 건국과 동시에 송대에 극에 달했던 차 문화의 틀을 크게 틀러놓는다. 즉 연고차의 생산중단과 산차(散茶) 생산으로 나타난다. 지금의 관점으로는 차문화가 한

출입이 잦았는데, 어전에서 화제를 나눌 때는 차를 마셨다.

④ 공민왕이 다반제절(茶飯諸節)의 일을 상시시켰다.

⑤ 하연(1376~1453): 조선조의 문신으로 영의정을 지낸 차인이다. ‘상수가 보낸 신차를 읊은 시’에서 고형차에 관한 얘기가 나온다.

⑥ 장가구(1270~1354): 원대 희곡작가로 많은 작품을 남겼는데 그의 ‘금원산곡’ ‘풍요곡’ ‘풍요곡’ 등의 글 안에 차 얘기가 자주 나온다.

⑦ 사내암(?~1376): 원명 사이의 소설가로 <수호전>의 작가다. 소설 속에 차 얘기가 몇 곳 나온다.

⑧ 왕복(1362~1416): 명대 서화

**고려말 척불정책에 차 퇴조
중국 산차 생산으로 대중화**

걸음 퇴보했다고 볼 수도 있으나 반면에 차의 대중화에 이바지하고 차의 순수성을 살렸다는 면에서는 크게 발전된 일이라 하겠다.

일본도 우아다(宇治茶)가 자리 잡고 차의 유포도 생기기 시작한다.

① 김재(1353~1419): 문신으로 호는 아은(阿隱), 목은, 포은, 양촌에게서 배웠고 성균관 박사가 됐다. 차를 즐겨 ‘산가서(山家序)’ 등을 남겼다.

② <현릉척백장청규>: 공민왕 때 보수 스님에 의해 간행되었다. 우리나라 불가의 다례가 원대 백장청규에 준칙하였으니 먼저 나온 선원청규와 더불어 불가 다사(茶事)의 율(律)로 되었다.

③ 신돈이 왕의 신임을 얻어 궁정

■성균관대 예절도대학

한국	중국	일본
1352 길재의 출생 ①	1354 장가구(張可久) ⑥	
1356 공주거 스님계 다시(茶匙)를 선물 <현릉척백장청규(玄陵勅白丈清規)> ②	1359 홍간계 ⑦ ⑧ 사내암(施耐庵) ① 1362 왕복 ⑧	
원구들의 국성	1364 주원장의 등성	
1363 문익점의 환국	1366 홍희문 ⑨	
1365 신돈이 어전에서 읊다 ③	1368 명(明)의 건국 ⑩	
1367 이체현의 죽음		
1368 공민왕의 다반 기사 ④		
1370 하연의 출생 ⑤	1373 다마사(茶馬司) 설치 ⑩ 한학, 덕상 ⑩	1368 조희의만 장군이 됨 ④ <요귀서(藥歸書)> <정훈원래(庭訓往來)> 등의 저서

④ 표는 약(about)

전자식 2중문 3중경보 특히

불 전 함

가격 수요증가로 시중품과 가격동일 움직이거나 던문만 열어도 경내 전지역 정보상태

- ◆ 돌발적인 정보로 침입자, 100% 도주
- ◆ 도난의 염려가 없는 사고 미연방지100%
- ◎ 각지역 대리점 모집

서원기전 043-647-2378, 011-467-1472

- 매일경제신문 인체 경영학 연재 -

이강욱 교수의 체질개선 ☆ **해독다이어트** ☆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일상 생활하며, 공복감 없이 2주에 5~8kg 뺄 수 있다.

95%의 다이어트가 실패로 끝나는 현실에서 수십년간 몸안에 쌓인 온갖 노폐물이 빠져나와 체중감량이 된다는 이강욱 교수의 20여년 임상경험은 비만인들에게는 귀가 번쩍 뜨이는 희소식이다.

"여자가 살빼기 더 힘든 이유"

여자가 살빼기가 더 힘든 것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여성 본래의 역할로 남성보다 2배 이상의 체지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영양과다, 운동부족, 대사가능의 장애 등으로 노폐물이 쌓여 임신전의 체중으로 복귀하지 않는 여성이 상당수이다. 또한 생리기간 동안 체내 축적된 수분이 부종으로 바뀌어 체중이 증가하여 합병증과 압박 등 고위험을 수반하게 된다.

체내 노폐물이 빠져, 건강해질로 바꾸는 발효원액 절삭법

똥통하다는 것은 단지 체내에 보기 싫은 지방만이 쌓인 것이 아니다. 산업사회의 오염된 환경에서 성장한 우리의 몸 속에는 현대의학으로도 규명 못하는 노폐물이 장 속에는 이끼처럼 숙변이 쌓이고 관절 사이에서 박히고 간에는 지방이 엉기고 혈관에 쌓여 혈액이 탁해지고 굳고 막히는 현상이 발생한다. 살 빼는 약을 먹거나 물단식을 하여도 살은 빠지지만 무엇이 빠지느냐가 문제다. 체중은 줄이되 노폐물을 제거하고 줄여야한다. 그렇지 않으면 손발이 저리고 숨이 답답해 지고 피는 더욱 탁해져 혈액순환 장애의 증상이 있다.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발효원액은 우리몸에서 자란 50여종의 야채, 과일, 해조류 등을 3~5년간 장기간 자연발효 숙성시킨 것으로 그 속에는 천연비타민과 미네랄, 수역의 효소들이 살아 숨쉬고 있다. 이것을 인체에 공급하면 모든 인체의 장기들이 휴식을 취하면서 효소는 인체 곳곳에 마쳐 쓰여가져 몸 수습기간 쌓인 독성 노폐물을 청소하고, 과잉으로 축적되어있는 지방을 분해하는 내과 대수술을 일상 생활 중에 소리없이 진행한다.

02)523-0708 초록원 (팔보효소)

최면-전생-빙의치유 상담

- 개인상담 및 치유, 교육 및 세미나 -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아래와 같은 각종 스트레스, 심리적 문제, 인생문제, 고민에 대해 직접 개인상담과 교육 및 세미나를 해드립니다.

- 불안증
- 우울증
- 각종 중독증 (담배, 알코올, 음식, 약물)
- 각종 알레르기 문제
- 섭식장애 (비만문제)
- 환청 및 각종 신경성 장애
- 업장과 관련한 전생문제
- 빙의 문제

• **상담지도전문가** -

설기문 박사: 상담심리, 최면 및 전생치료, NLP치료 전문가, (전)동아대학교 교수로서 "인간관계와 정신건강", "최면과 최면치료", "최면과 전생태행", "NLP의 원리"와 같은 다수의 의 전문서적을 저술하였음.

한국 최면-전생상담 연구원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9동 1062-2번지
031-442-5598, 011-1762-4598
www.mindcoach.co.kr kmseol@daum.net

소중한 인연을 위한 정성 고품격 장수 발효식품

참꽃의 신묘한 약성을 조청으로 먹는다!

山寺 참꽃조청 · 약도라지조청

어혈, 노폐물, 피로독소, 적체의 해소 / 손발저림, 몸의 냉증, 다이어트 / 위장, 심장, 신장등 / 오장육부 기능 정상화 / 신장보호, 관절염, 당뇨, 원기회복에 기여

기원전, 전석, 기침의 완화 / 호흡기 질환개선 / 폐기능 강화, 피로 회복 / 거담, 배변 작용에 기여

속이 편안하면 오래살고 몸이 따뜻하면 만사가 잘 풀린다

- **山寺 참꽃조청**은 한의사 이기용 원장과 약초 연구가 김지문거사님의 비법으로 참꽃 나무의 유독성은 제거하고 좋은 약성만 추출, 농축하였으므로 **누가 먹어도 율이 전혀 오르지 않습니다.**
- **山寺 참꽃조청**은 국내산 좋은 원료만을 사용하여 사찰에서 7일동안의 정성으로 겨우 한 술 고이자는 **극소량의 명품조청입니다.**
- **山寺 약도라지조청**은 천연 야생 약도라지에 야생약초를 가미하여 약도라지의 약성을 배가시켜 고농축 시킨 고품격 조청입니다.

문의 및 주문처: **054-372-3166** **054-372-5721** **금융사**

• 입금처: 농협 727077-52-056761 현순희 (산사 참꽃조청과 약도라지 조청은 주문에 의해서만 만드십니다)